

공공도서관 분류오류의 실증적 분석과 대안

Analysis and Alternative of Classification Errors in Public Libraries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
| II. 분류오류의 유형과 원인 | 2. 분류오류의 분석과 해석 |
| 1. 분류오류의 개념과 유형 | 3. 분류오류의 해소방안과 과제 |
| 2. 분류오류의 원인과 사례 | IV. 결론 및 제언 |
| III. 공공도서관 분류오류의 분석과 대안 | |

초 록

도서관은 오랫동안 분류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왔다. 그 궁극적 목적은 자료의 체계적 배가와 접근(브라우징)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동일한 자료가 동일한 분류번호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을 표준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소위 분류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류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즉 분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학부의 분류교육의 충실화, 사서직 실무교육의 강화, CIP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 분류표의 체계성 및 하위항목의 개선, 재분류(분류수정)팀의 구성과 가동, 분류사이트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자료분류, 분류오류, 오분류, 공공도서관, 한국십진분류법

Abstract

Libraries have long experience of applying classification schemes to resources - chiefly books. The ultimate goals of classification are systematic shelving of books and ease of user's acces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books about a particular field of knowledge should be shelved together and near each other. If not so, it is classification error.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erefore, on analysing the classification error in Korea public libraries and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Key Words: library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error, public library, KDC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eagu.ac.kr. <http://biho.daegu.ac.kr/~yhy/>)

• 접수일 : 2003. 2. 4 • 최초심사일 : 2003. 2. 17 • 최종심사일 : 2003. 2. 26

I. 서론

모든 도서관과 정보센터가 수집하는 자료의 서가배열은 분류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방대한 서고는 무질서하게 축적된 책의 창고에 불과하고, 사서는 배가에 진땀을 흘리며, 이용자 또한 브라우징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책을 매개로 선대의 정신문화 및 당대의 지식정보와 조우하는 서고공간은 정교한 배열과정을 필요로 하며, 분류시스템은 그 체계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그런데 최근에 수서-목록정보의 패키지화, 출판시 목록정보(CIP)의 제공, 아웃소싱 등을 빌미로 자료분류의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중요성을 격하시키고 있다. 그 대부분은 매우 지역적인 이유에서 발원한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분류의 무용론은 기초이론의 취약성, 풍부한 실무경험의 부재, 현장실무에 대한 몰이해를 기술결정주의적 사고, 온라인 검색의 만능주의, 디지털 지상주의 등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그 여파는 학부제의 도입과 맞물려 분류를 선택과목으로 전락시키거나 회피하여도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도서관계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웃소싱을 영접하고 있다. 소위 교육적 파행이 외주의 인자로 작용하고 그 부메랑 효과가 전공의 학문성과 사서직의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분류오류이다. 동일한 자료에 적용되는 분류법이 같다면 분류번호도 동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동일한 자료의 분류번호가 상이한 경우를 자주 목도할 수 있다. 도서관계는 무슨 논리로 항변할 것이며,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학계나 현장이 방치하였거나 외면하고 있는, 그래서 선행연구가 전무한 자료분류의 오류문제를 공공도서관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한국십진분류법(KDC, 제4판)를 사용하고 있어 분류오류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공교육 및 현장의 직무교육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분류오류의 유형과 원인

1. 분류오류의 개념과 유형

사전적 의미의 오류는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나거나 틀린 인식, 그리고 어떤 처리행위의 결과가 소기의 것과 다르게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용어는 '착각으로 인

하여 잘못하는 것, 또는 그러한 잘못'을 지칭하는 착오(오착)나 착류가 있다.¹⁾ 이를 분류 오류(classification error)에 대입할 경우, 상술한 '소기의 것'과 상이하게 나타난 상태는 자료분류의 개념이나 본질을 이탈한 결과를 말한다.

그렇다면 자료분류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수집하는 다종다양한 정보자료의 주제나 형식의 유사성 또는 일정한 원칙이나 목적을 기준으로 체계화하는 행위나 과정이다. 요컨대 분류는 정보자료를 주제·형식·관점 등에 따라 군집화(grouping)하되, 각각의 군집된 자료 내에서 다시 개별화(individualization)하는 절차²⁾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류오류는 기본원칙인 군집화와 개별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탈한 결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의 분류오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도서관의 서가배열이나 OPAC을 검색하면 주류배정의 착오에서 세목전개의 편차에 이르기까지 범주화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각색이다. 단적인 예로 「인물한국언론사」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언론사를 기술한 자료'이므로 071.1(070 신문·언론·저널리즘 + 11 지역구분기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의 공공도서관(20개관) 중에서 무려 17개관이 오류³⁾를 범하고 있다. 이 사례에 나타난 오분류의 유형을 몇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주류배정의 오류

이것은 어떤 자료가 특정도서관 내에서 또는 여러 도서관에서 상이한 주류에 배정되는 경우로, 가장 심각한 분류오류에 해당한다. 예컨대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에서 '꽃'은 '한국문화'를 설명하는 도구(재료)에 불과하므로 한국문화사(380.911)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도서관 가운데 4개관(강동, 동대문, 송파, 용산)이 식물생태학(481.5)에, 2개관(강남, 고척)이 한국사(911)에 배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임의규정인 주제별 전기(998)처럼 적용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주류배정이 달라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로 「아돌프 히틀러」의 경우, 3개관(강서, 동대문, 중랑구립정보)은 전기일반(990)에, 3개관(강동, 개포, 동대문)은 주제별 전기(998)에, 나머지 대부분은 정치학(340) 아래에 분류하고 있다.

2) 강목 및 요목배정의 오류

이 유형은 어떤 자료의 주류번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강목이나 요목번호에서의 오류를 의미한다. 비록 주류번호의 오류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매우 빈번한 사례에 속하며, 대체로 서명을 통한 주제분석이 곤란하거나 복합주제를 취급한 자료에서 자주 발생한다.

1) 김민수 등편, 국어대사전(서울 : 금성출판사, 1991), p.2896.

2) 윤희윤, 정보자료분류론(대구 : 태일사, 1998), p.18.

3) 오류번호는 070.911(1개관), 070.99(1개관), 071.1099(1개관), 071.911(1개관), 324.133(1개관), 324.133991(1개관), 326.7(1개관), 342.133991(2개관), 990.77(7개관), 991.77(1개관)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

가령 대전·충청의 경우, 기든스의 「제3의 길」을 3개관(논산, 제천시립, 웅진)은 사회사상(301)에, 8개관(한밭, 천안, 아산 등)은 사회학(330)에, 2개관(아산, 충북중앙)은 정치학(340) 아래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인천·경기·강원의 경우, 「우리말의 상상력」을 1개관(하남시립)은 언어일반(710)에, 5개관(인천중앙, 주안, 과천, 광명, 부천)은 어원·어의(712)에, 나머지 8개관(부평, 북구, 화도진, 속초평생교육정보관 등)은 어휘(714)에 분류하고 있다.

3) 세목전개의 오류

이것은 유강목 이하의 분류번호를 잘못 결정하거나 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따라서 주제분석의 오류보다는 주기의 이해 및 적용상의 오류, 보조표의 무리한 적용, 그리고 세목 이하에 대한 전계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로는 광주·전라·제주에서 분류한 「지식구조론」을 들 수 있는데, 5개관(광주중앙, 학생교육문화회관, 남평, 여수쌍봉, 서귀포시립)은 문헌정보학(020)에, 3개관(광주시립, 북구일곡, 여수현암)은 문헌정보학이론(020.1)에, 2개관(금호교육문화회관, 제주탐라)은 도서관과 사회(020.13)에 분류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맥키의 「윤리학」을 1개관(남부)은 윤리(사상)학사(190.109)에, 2개관(서부, 두류)은 윤리학이론(190.1)에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분류오류의 원인과 사례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류사서는 학부의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다년간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유능한 직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매년 개설하는 분류교육에 참여하여 적용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오분류가 적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사례와 함께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제결정(파악)의 잘못

대개 극히 일부(총류, 문학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주제에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주제는 수록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서명정보와 내용목차에서 결정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론, 서지정보, CIP 데이터, 본문 등의 순서를 거치면서 파악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료분류는 실무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분류자의 관점차이로 인하여 주류배정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통상적으로 서명과 주제의 일치율은 60~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명만으로 주제를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서명에 복수의 키워드나 패시가 존재할 경우에는 분류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함으로써 주제결정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컨대 하이데거

가 저술한 「논리학 : 진리란 무엇인가」의 주제는 논리학(170)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경우, 경북교육정보센터는 부서명을 중시하여 철학의 존재론(112) 아래에, 남부 및 달성도서관은 저자에 치중하여 독일·오스트리아철학 아래의 현상학 및 실존주의(165.8)에 분류하고 있다. 도렌의 「지식의 역사」는 지식(001.09)에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경남의 5개관(부산의 동구, 반송, 영도, 시립중앙, 밀양시립)은 역사(900)에, 또 다른 5개관(부전, 사하, 구덕, 울산남부, 창원)은 인식론(115)에 분류하고 있다.

2) 형식·시대·지역에 대한 판단(적용)의 잘못

어떤 자료가 취급한 형식과 시대는 주제 다음으로 중요한 분류요소이다. 특히 조합식 분류원리를 적극 도입한 문학작품은 그 형식이나 작가(또는 작품)의 시대가 언어 다음으로 중시되어야 하는 패시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오이예사의 「인디언 숲으로 가다」는 영미소설(843)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의 5개관(부산의 동구, 연산, 구포, 울산남부, 김해)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문학(894)에, 2개관(울주, 밀양시립)은 북아메리카 인디언역사(940.1)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영미소설(843)인 데도 광주·전라·제주의 1개관(여수현암)은 수필(844)에, 7개관(광주학생독립, 금호교육문화회관, 광양공공, 광양시립, 목포공공, 목포시립, 제주탐라, 제주)은 르포르타주 및 기타(848)에 분류함으로써 형식적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게다가 영미문학은 시대구분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나주공공도서관은 한국문학의 시대구분기호(6)를 차용하여 843.6에 분류하고 있다.

3) 분류규정의 몰이해 또는 적용상의 오류

분류규정은 자료를 분류할 때 적용할 일반원칙이나 개별주제에 관한 특별규정을 성문화 또는 공식화한 지침으로서, 실무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동일한 주제의 군집화 및 유사주제의 인접배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기본원칙, 단일주제의 취급관점, 복수주제의 상호관련성, 주제와 기타 요소, 원저작과 관련저작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⁴⁾ 이러한 분류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용의 잘못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영화 속의 철학」은 ‘영화’를 소재로 삼아 ‘철학’을 논한 자료이므로 철학(104)에 분류해야 하는데도 대전·충청의 3개관(웅진, 충주시립, 제천시립)은 영화(688) 아래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칸트와 불교」는 칸트의 방법론으로 불교문제를 논한 자료이므로 불교철학(220.1)에 분류해야 한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1개관(마포평생학습관, 은평구립)은 비판철학(132.3)에, 12개관(강동, 고척, 구로, 도봉, 동작, 정독 등)은 칸트 및 동시대철학·칸트파(165.2)에, 1개관(남산)은 비교종

4) 윤희윤, 전게서, pp.50-51.

교(210)에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주기(note)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및 적용상 잘못

주기는 표목(분류기호) 또는 그 아래에 기술된 다양한 형태의 분류지침을 말한다. 그 유형에는 첨가주, 분류지시주, 타분류번호지시주, 세분지시주, 포함주, 양자택일주, 참조주 등이 있다. 이들은 표목의 함의와 한계, 구조와 변화, 우선순위와 조합방식, 종속 또는 상관관계, 다른 표목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분류자는 주기의 개념, 성격, 적용방식, 용례 등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주기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적용의 잘못으로 인한 오분류의 사례도 부지기수로 많다. 예컨대 「엡센스 독한사전」은 본표 '753.1 - .9 2개 국어사전' 아래에 '710 - 799와 같이 언어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753.1(75+3+1)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의 3개관(개포, 성북정보, 용산)을 제외한 무려 16개관이 독일어사전(753)에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정보서비스론」은 025.2(참고 및 정보봉사)에 분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의 무려 7개 공공도서관(강남, 강서, 구로, 용산, 은평구립, 정독, 종로)이 020.13(도서관과 사회)에 분류하고 있다. 그것은 020.13 아래에 기술된 '정보정책, 정보화사회, 정보와 사회, 정보산업, 정보서비스, 정보공해 등을 포함한다'는 주에 대한 물이해에서 기인한다. 이 주기에 기술된 '정보서비스는 어떤 자료가 '도서관과 사회'를 다루었을 때 그 내용의 일부로 정보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5) 조기표 적용의 오류

조기표는 분류자의 기억을 지원하는 보조표를 말한다. KDC는 그 유형을 9개(표준구분표, 지역구분표, 한국지역구분표, 한국시대구분표, 국어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종교공통구분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표준구분표 외에는 반드시 본표에서 세분(조합)지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용 또는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물리학 용어사전」은 420.034(420+034)에 분류해야 하는데도 국립중앙도서관과 인천·경기·강원의 7개관(인천시립, 부평, 중앙, 주안, 성남, 분당문화정보센터, 원주시립)이 402.3 내지 420.34에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리학(420) 아래의 420.1, 420.4, 420.7이 각각 420에 표준구분표(01, 04, 07)를 조합한 번호일 때 420.34(420+034)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본표의 420.1은 이론물리학, 420.4는 물질의 상태, 420.7은 물리실험과 측정이므로 표준구분표의 각 기호와 의미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525.025(525+025)에 분류해야 하는 「원예도감」의 경우도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의 10개관(부산의 동구, 시민, 사하, 울산동부, 창원, 진해시립 등)은 도감을 배제한 525(원예)에, 3개관은 도감을 03으로 간주하여 525.03에 분류하고 있다.

6) 분류표의 비논리성과 항목전개의 제한

오분류의 일차적 원인은 분류자의 판단, 이해, 적용의 잘못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무자의 분류능력이 우수하여도 분류표의 구성체계가 비논리적이거나 항목전개가 제한적이면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DDC와 비교할 때, 본표와 조기표를 연결하는 주기의 부재, 각각의 표목 아래에 전개된 항목수의 절대 부족 등이 반증한다. 가령 지역별 일반통계(311-317) 아래의 세분지시주는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기표 중에서 지역구분표는 왜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요컨대 어떤 자료에 취급된 지역을 추가기호로 조합할 때는 당연히 지역구분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DC는 역사 아래의 해당기호를 조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기표로서의 지역구분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소설의 종류(역사, 탐정, 과학, 애정 등)를 세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910년 이후에 발표된 국내의 모든 소설은 현대소설에 분류해야 하며, 서양문학은 시대구분조차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로 인한 오분류의 사례를 적시하면, 「환경윤리」는 윤리학(190) 아래의 요목 또는 그 이하에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근접한 사회윤리(194) 아래에 분류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공해·환경공학(539.9)과 사회윤리(194)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슈테판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은 독일소설(853)에 분류하되 시대기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관(전주시립, 제주)은 853.6(853+6)에 분류하고 있다. 이 때의 6은 한국소설의 시대구분기호에서 원용하였지만 명백한 오류이다. 그 이유는 독일소설을 시대별로 세분할 수 있는 주기가 없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문학의 시대구분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시대구분을 차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DDC는 각국 문학 아래에 각각의 시대구분표(period table)를 마련하고 있다.

Ⅲ. 공공도서관 분류오류의 분석과 대안

도서관의 분류오류는 상술한 것처럼 실무자의 착오와 분류표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동일한 분류표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의 분류번호가 도서관에 따라 주류배정에서 세목전개에 이르기까지 다르다면, 그래서 이용자의 서가접근에 혼란을 주고 브라우징에서 누락된다면 개가제의 퇴색과 더불어 사장도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KDC를 표준분류표로 사용하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오분류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먼저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전국의 모든 공립공공도서관이며, 이를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조사 및 분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으로 결정된 공공도서관은 <표 1>에 집약한 것처럼 총 138개관(34.5%)이다.

- ① 자치단체 중에서 소장자료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군단위 이하의 도서관
- ② 시(구)단위 이상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서 그 성격이나 봉사대상자가 제한적인 경우(4·19 혁명기념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등)
- ③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접속 및 OPAC의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 ④ KDC(4판)를 표준분류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조사대상 자료는 1980년 이후에 출판된 도서로 한정하였으며, 각 도서관의 OPAC에서 100권(10개 주류×10개 강목)을 골고루 선정하였다. 다만 선정된 자료의 권역 내 소장율이 50%에 미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대상으로 결정된 자료수는 <표 1>과 같이 총 10,229권(74.1%)이다.

<표 1> 조사 및 분석대상의 도서관과 자료수

구 분	도서관수		자료수	
	공립	조사한 도서관수(%)	계(권)	분석한 자료수(%)
서울	30	26(86.7)	2,600	2,336(89.8)
인천·경기·강원	98	19(19.4)	1,900	1,516(79.8)
대전·충청	69	23(33.3)	2,300	1,242(54.0)
대구·경북	60	20(33.3)	2,000	1,470(73.5)
부산·울산·경남	59	28(47.5)	2,800	2,237((79.9)
광주·전라·제주	84	22(26.2)	2,200	1,428(89.8)
계	400	138(34.5)	13,800	10,229(74.1)

마지막으로 대상자료의 분류오류는 3개월(2002. 9. 1~11. 30)에 걸쳐 지역(권역)별 및 분류수준별(주류, 강목, 요목, 완전한 번호) 일치율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오분류의 여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번호를 판정기준으로 삼되, 각각의 실물자료 및 서점사이트의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분류번호의 정확성과 가외성을 확인하였다.

2. 분류오류의 분석과 해석

1) 지역(권역)별 분류오류의 분석

먼저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분류번호의 일치율은 <표 2>와 같다. 주류 및 강목의 평균 일치율은 각각 81.3%와 74.4%인 가운데 문학, 언어, 예술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요목의 평균 일치율은 64.6%이며, 문학·사회과학·철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류번호의 완전 일치율은 50.2%에 불과한 가운데 특히 총류, 예술, 역사의 순으로 낮았다. 요컨대 서울시의 분류오류는 주류가 18.7%, 강목이 25.6%, 요목이 35.4%, 그리고 분류번호 전체로는 무려 49.8%에 달하며, 특히 총류와 기술과학에서의 오류가 많은 편이다.

<표 2> 서울시 공공도서관(26개관)의 분류번호 일치율

구 분	분 석 자료수	분류번호 일치율(일치수)				누락 자료수(%)
		주 류	강 목	요 목	전 체	
총 류 (000)	236	61.0(144)	55.9(132)	39.8(94)	21.2(50)	24(9.2)
철 학 (100)	229	90.0(206)	79.5(182)	74.7(171)	64.6(148)	31(11.9)
종 교 (200)	228	89.0(203)	78.9(180)	70.6(161)	57.0(130)	32(12.3)
사회과학 (300)	232	87.1(202)	84.9(197)	81.5(189)	68.5(159)	28(10.8)
순수과학 (400)	237	78.1(185)	69.6(165)	60.3(143)	46.4(110)	23(8.8)
기술과학 (500)	231	58.9(136)	56.7(131)	52.8(122)	34.1(79)	29(11.2)
예 술 (600)	237	94.9(225)	84.8(201)	73.8(175)	40.5(96)	23(8.8)
언 어 (700)	227	96.5(219)	87.7(199)	57.3(130)	45.4(103)	33(12.7)
문 학 (800)	242	97.1(235)	90.9(220)	82.2(199)	79.8(193)	18(6.9)
역 사 (900)	237	60.3(143)	55.3(131)	52.3(124)	43.9(104)	23(8.8)
계(평균)	2,336	81.3	74.4	64.6	50.2	264(11.3)

<표 4> 인천·경기·강원지역 공공도서관(19개관)의 분류번호 일치율

구 분	분 석 자료수	분류번호 일치율(일치수)				누락 자료수(%)
		주 류	강 목	요 목	전 체	
총 류 (000)	145	89.7(130)	87.6(127)	75.9(110)	33.1(48)	45(23.7)
철 학 (100)	152	82.2(125)	67.8(103)	61.2(93)	61.2(93)	38(25.0)
종 교 (200)	155	93.5(145)	77.4(120)	69.0(107)	69.0(107)	35(22.6)
사회과학 (300)	162	91.4(148)	90.1(146)	79.6(129)	79.6(129)	28(14.7)
순수과학 (400)	140	98.6(138)	92.9(130)	85.7(120)	67.1(94)	50(26.3)
기술과학 (500)	123	85.4(105)	84.6(104)	78.9(97)	43.1(53)	67(35.3)
예 술 (600)	153	88.2(135)	75.8(116)	71.9(110)	71.9(110)	37(19.5)
언 어 (700)	164	95.7(157)	95.7(157)	74.4(122)	74.4(122)	26(13.7)
문 학 (800)	177	99.4(176)	77.4(137)	75.1(133)	75.1(133)	13(6.8)
역 사 (900)	145	95.9(139)	93.1(135)	88.3(128)	88.3(128)	45(23.7)
계(평균)	1,516	92.2	84.1	75.8	67.1	384(20.2)

다음으로 인천·경기·강원지역 공공도서관의 분류번호 일치율은 <표 3>과 같다. 주류의 평균 일치율은 92.2%이며 문학·순수과학·언어의 순으로 높았다. 강목의 일치율은 84.1%인 가운데 언어·역사·순수과학의 순으로 높고, 요목의 평균 일치율은 75.8%이며 역사·순수과학·기술과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분류번호의 완전 일치율은 67.1%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총류, 기술과학, 철학의 순으로 낮았다. 따라서 오분류의 비율은 주류가 7.8%, 강목이 15.9%, 요목이 24.2%, 그리고 분류번호 전체가 32.9%이며, 대체로 철학에서의 분류오류 사례가 많았다.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표 4>에 집약한 것처럼 주류의 평균 일치율은 83.6%이며, 문학·언어·총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목은 평균 75.3%의 일치율을 보이는 가운데 언어·총류·문학의 순으로 낮았으며, 일치율이 64.7%인 요목은 언어·문학·역사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분류번호의 완전 일치율은 46.3%로 불과하며, 특히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에서의 분류오류가 많았다. 환언하면 오분류의 비율은 주류가 16.4%, 강목이 24.7%, 요목이 35.3%, 그리고 분류번호 전체가 53.7%이며, 대체로 사회과학에서의 오분류 비율이 높았다.

<표 4>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23개관)의 분류번호 일치율

구 분	분 석 자료수	분류번호 일치율(일치수)				누락 자료수(%)
		주 류	강 목	요 목	전 체	
총 류 (000)	101	95.0(96)	90.1(91)	54.5(55)	39.6(40)	129(56.1)
철 학 (100)	103	75.7(78)	68.0(70)	63.1(65)	55.3(57)	127(55.2)
종 교 (200)	96	70.8(68)	67.7(65)	56.3(54)	42.7(41)	134(58.3)
사회과학 (300)	123	63.4(78)	48.0(59)	42.3(52)	26.8(33)	107(46.5)
순수과학 (400)	130	93.1(121)	81.5(106)	69.2(90)	39.2(51)	100(43.5)
기술과학 (500)	94	68.1(64)	66.0(62)	55.3(52)	28.7(27)	136(59.1)
예 술 (600)	116	56.0(65)	52.6(61)	50.0(58)	38.8(45)	114(49.6)
언 어 (700)	139	99.3(138)	99.3(138)	87.1(121)	59.0(82)	91(39.6)
문 학 (800)	171	100.0(171)	83.7(143)	77.8(133)	64.9(111)	59(25.7)
역 사 (900)	169	94.1(159)	82.8(140)	73.4(124)	52.1(88)	61(26.5)
계(평균)	1,242	83.6	75.3	64.7	46.3	1,058(46.0)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표 5>에서 주류의 평균 일치율은 94.8%로 매우 높은 편이며, 문학과 순수과학은 100% 일치하고 있다. 강목의 일치율은 88.1%인 가운데 언어·종교·역사의 순으로 높고, 77.4%의 일치율을 보인 요목은 문학·역사·사회과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 일치율은 역시 55.7%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따라서 오분류의 비율은 주류가 5.2%, 강목이 11.9%, 요목이 22.6%, 그리고 분류번호 전체가 44.3%이며, 대체로 예술자료의 분류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표 5> 대구·경북지역 공공도서관(20개관)의 분류번호 일치율

구 분	분 석 자료수	분류번호 일치율(일치수)				누락 자료수(%)
		주 류	강 목	요 목	전 체	
총 류 (000)	140	86.4(121)	83.6(117)	81.4(114)	50.7(71)	60(30.0)
철 학 (100)	164	97.0(159)	86.0(141)	79.9(131)	65.2(107)	36(18.0)
종 교 (200)	150	98.7(148)	95.3(143)	78.0(117)	65.3(98)	50(25.0)
사회과학 (300)	158	92.4(146)	89.9(142)	82.3(130)	41.8(66)	42(21.0)
순수과학 (400)	118	100.0(118)	81.4(96)	62.7(74)	30.5(36)	82(41.0)
기술과학 (500)	117	89.7(105)	88.9(104)	79.5(93)	53.0(62)	83(41.5)
예 술 (600)	124	85.5(106)	69.4(86)	48.4(60)	33.1(41)	76(38.0)
언 어 (700)	156	99.4(155)	98.7(154)	79.5(124)	55.8(87)	44(22.0)
문 학 (800)	167	100.0(167)	88.0(147)	87.4(146)	83.2(139)	33(16.5)
역 사 (900)	176	95.5(168)	93.8(165)	84.7(149)	63.6(112)	24(12.0)
계(평균)	1,470	94.8	88.1	77.4	55.7	530(26.5)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평균 일치율은 <표 6>과 같다. 주류의 경우는 85.9%이며, 사회과학이 100%의 일치율을 보이는 가운데 역사, 문학의 순으로 높았다. 강목의 평균 일치율은 77.8%이며, 언어·역사·예술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일치율이 60.7%인 요목은 예술·역사·순수과학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완전 일치율은 44.7%로 매우 낮은 편이다. 환언하면 오분류의 비율은 주류가 14.1%, 강목이 22.2%, 요목이 39.3%, 분류번호 전체가 무려 55.3%이며, 특히 종교와 총류의 분류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표 6>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28개관)의 분류번호 일치율

구 분	분 석 자료수	분류번호 일치율(일치수)				누락 자료수(%)
		주 류	강 목	요 목	전 체	
총 류 (000)	215	70.2(151)	56.7(109)	32.1(69)	27.0(58)	65(23.2)
철 학 (100)	241	74.3(179)	62.2(150)	51.5(124)	40.2(97)	39(13.9)
종 교 (200)	227	67.0(152)	61.7(140)	52.4(119)	35.2(80)	53(18.9)
사회과학 (300)	244	100.0(244)	83.2(203)	52.9(129)	30.7(75)	36(12.9)
순수과학 (400)	235	83.8(197)	81.7(192)	71.5(168)	55.3(130)	45(16.1)
기술과학 (500)	177	85.9(152)	84.7(150)	62.7(111)	31.1(55)	103(36.8)
예 술 (600)	222	91.9(204)	86.9(193)	81.1(180)	66.7(148)	58(20.7)
언 어 (700)	205	94.6(194)	93.2(191)	60.0(123)	44.9(92)	75(26.8)
문 학 (800)	239	95.0(227)	86.2(206)	69.5(166)	62.8(150)	41(14.6)
역 사 (900)	232	95.7(222)	88.8(206)	72.4(168)	49.6(115)	48(17.1)
계(평균)	2,237	85.9	77.8	60.7	44.7	563(20.1)

마지막으로 광주·전라·제주지역의 분류번호의 일치율을 집약하면 <표 7>과 같다. 주류는 평균 92.0%이며, 사회과학·종교·기술과학의 순으로 높았다. 강목은 평균 82.9%인 가운데 사회과학·기술과학·역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목은 평균 67.9%이고 역사·사회과학·기술과학의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분류번호의 완전 일치율은 51.6%로 절

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오분류의 비율은 주류가 8.0%, 강목이 17.1%, 요목이 32.1%, 분류번호 전체가 절반에 육박하는 48.4%이며, 특히 예술과 철학에서의 오류가 많은 편이다.

〈표 7〉 광주·전라·제주지역 공공도서관(22개관)의 분류번호 일치율

구 분	분 석 자료수	분류번호 일치율(일치수)				누락 자료수(%)
		주 류	강 목	요 목	전 체	
총 류 (000)	152	86.2(131)	82.9(126)	76.3(116)	38.2(58)	68(30.9)
철 학 (100)	117	85.5(100)	61.5(72)	35.0(41)	33.3(39)	103(46.8)
종 교 (200)	128	98.4(126)	85.2(109)	78.9(101)	73.4(94)	92(41.8)
사회과학 (300)	136	99.3(135)	97.8(133)	80.1(109)	52.2(71)	84(38.2)
순수과학 (400)	162	91.4(148)	80.9(131)	67.3(109)	57.4(83)	58(26.4)
기술과학 (500)	135	97.8(132)	93.3(126)	80.0(108)	51.9(70)	85(38.6)
예 술 (600)	176	79.0(139)	61.4(108)	42.6(75)	38.1(67)	44(20.0)
언 어 (700)	109	92.7(101)	90.0(98)	50.5(55)	27.5(30)	50.5(111)
문 학 (800)	168	97.6(164)	88.7(149)	79.2(133)	66.1(111)	52(23.6)
역 사 (900)	145	95.2(138)	91.0(132)	84.1(122)	78.6(114)	75(34.1)
계(평균)	1,428	92.0	82.9	67.9	51.6	772(54.1)

이상에서 분석한 지역(권역)별 분류오류를 요약하면 주류배정은 최저 5.2%(대구·경북)에서 최고 18.7%(서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은 주제(결정)분석의 오류를 의미하며, 결국 같은 분류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의 배가위치가 도서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체 분류번호의 평균 오류비율이 32.9%~55.3%에 달한다는 사실도 국내 공공도서관의 분류기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반증한다.

2) 분류수준별 오분류의 분석

먼저 주류번호의 지역(권역)별 일치율을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전체의 평균은 87.9%에 달하지만 주제별 격차는 상당히 심하다. 총류의 경우는 서울의 일치율이 61.6%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부산·울산·경남으로 70.2%이다. 철학과 종교는 부산·울산·경남이 각각 74.3%와 67.0%로 가장 저조하고 그 다음이 대전·충청지역으로 각각 75.7%와 70.8%이다. 사회과학과 예술 역시 대전·충청지역의 일치율이 각각 63.4%와 56.0%로 최하위이며,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은 서울이 각각 78.1%와 58.9%로 가장 낮았다. 언어와 문학은 모두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반면에 역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이 60.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환언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주류번호 배정에서 나타난 오류의 평균은 약 12.1%이다. 주제별로는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기술과학·예술·역사의 오류비율이 각각 10% 이상인 반면에 순수과학·언어·문학은 각각 10% 이하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역(권역)별로는 서울,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인천·경기·강원, 대구·경북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주제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분류교육, 특히 주제분석을 위한 직무교육이 강조 내지 강화되어야 하는

지를 시사한다.

〈표 8〉 주류번호의 지역(권역)별 평균 일치율

주류	시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평균
총류		61.0	89.7	95.0	86.4	70.2	86.2	81.4
철학		90.0	82.2	75.7	97.0	74.3	85.5	84.1
종교		89.0	93.5	70.8	98.7	67.0	98.4	86.2
사회과학		87.1	91.4	63.4	92.4	100.0	99.3	88.9
순수과학		78.1	98.6	93.1	100.0	83.8	91.4	90.8
기술과학		58.9	85.4	68.1	89.7	85.9	97.8	81.0
예술		94.9	88.2	56.0	85.5	91.9	79.0	82.6
언어		96.5	95.7	99.3	99.4	94.6	92.7	96.4
문학		97.1	99.4	100.0	100.0	95.0	97.6	98.1
역사		60.3	95.9	94.1	95.5	95.7	95.2	89.5
평균		81.3	92.2	83.6	94.8	85.9	92.0	87.9

〈표 9〉 강목번호의 지역(권역)별 평균 일치율

주류	시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평균
총류		55.9	87.6	90.1	83.6	56.7	82.9	76.1
철학		79.5	67.8	68.0	86.0	62.2	61.5	70.8
종교		78.9	77.4	67.7	95.3	61.7	85.2	77.7
사회과학		84.9	90.1	48.0	89.9	83.2	97.8	82.3
순수과학		69.6	92.9	81.5	81.4	81.7	80.9	81.3
기술과학		56.7	84.6	66.0	88.9	84.7	93.3	79.0
예술		84.8	75.8	52.6	69.4	86.9	61.4	71.8
언어		87.7	95.7	99.3	98.7	83.2	90.0	94.1
문학		90.9	77.4	83.7	88.0	86.2	88.7	85.8
역사		55.3	93.1	82.8	93.8	88.8	91.0	84.1
평균		74.4	84.1	75.3	88.1	77.8	82.9	80.3

다음으로 강목번호의 지역(권역)별 평균 일치율은 <표 9>와 같다. 주류번호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은 80.3%로 높지만 주제별 편차는 심하다. 총류는 서울의 일치율이 55.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부산·울산·경남으로 56.7%이다. 철학은 광주·전라·제주가 61.5%, 종교는 부산·울산·경남이 61.7%로 가장 낮은 반면에 사회과학과 예술은 대전·충청지역이 각각 48.0%와 52.6%로 최하위이며,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은 서울시가 각각 69.6%와 56.7%로 가장 낮았다. 언어는 부산·울산·경남이 77.4%, 문학은 인천·경기·강원이 77.4%, 역사는 서울이 55.3%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해석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강목번호 배정에서 나타난 평균 오류는 약 19.7%이다. 주제별로는 총류·철학·종교·기술과학이 각각 20% 이상인 반면에 언어는 유일하게 10% 이하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역(권역)별 오분류의 평균은 주류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대전·충

청,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인천·경기·강원, 대구·경북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오분류의 비율이 높은 주류를 대상으로 주제분석, 분류표 및 분류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표 10> 요목번호의 지역(권역)별 평균 일치율

주류	시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호남·제주	평균
총류		39.8	54.5	54.5	81.4	32.1	76.3	60.0
철학		74.7	63.1	63.1	79.9	51.5	35.0	60.9
종교		70.6	69.0	56.3	78.0	52.4	78.9	67.5
사회과학		81.5	79.6	42.3	82.3	52.9	80.1	69.8
순수과학		60.3	85.7	69.2	62.7	71.5	67.3	69.5
기술과학		52.8	78.9	55.3	79.5	62.7	80.0	68.2
예술		73.8	71.9	50.0	48.4	81.1	42.6	61.3
언어		57.3	74.4	87.1	79.5	60.0	50.5	68.1
문학		82.2	75.1	77.8	87.4	69.5	79.2	78.5
역사		52.3	88.3	73.4	84.7	72.4	84.1	78.9
평균		64.6	75.8	64.7	77.4	60.7	67.9	68.3

그리고 요목번호의 평균 일치율은 <표 10>에 집약한 것처럼 68.3%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주제별 편차도 심하다. 총류와 종교는 부산·울산·경남이 각각 32.1%와 52.4%, 철학은 광주·전라·제주가 35.0%, 사회과학은 대전·충청지역이 42.3%로 가장 낮은 반면에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은 서울이 각각 60.3%와 52.8%로 가장 낮았다. 예술과 언어는 광주·전라·제주가 각각 42.6%와 50.5%로 가장 저조하고, 문학은 부산·울산·경남이 69.5%, 역사는 서울이 52.3%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요목배정에 나타난 평균 오류는 무려 31.7%에 달한다. 주제별로는 문학과 역사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서 30%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역(권역)별 오분류의 평균 비율은 부산·울산·경남, 서울, 대전·충청, 광주·전라·제주, 인천·경기·강원, 대구·경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목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목의 경우처럼 분류표 및 분류규정에 대한 정교한 직무교육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전체 분류번호의 평균 일치율은 <표 11>에 집약한 것처럼 51.8%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제별 편차도 최고 72.0%에서 최저 35.0%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다. 총류와 역사는 서울이 각각 21.2%와 43.9%, 철학과 언어는 광주·전라·제주가 각각 33.3%와 27.5%, 종교와 문학은 부산·울산·경남이 각각 35.2%와 62.8%, 사회과학과 기술과학은 대전·충청이 각각 26.8%와 28.7%, 순수과학과 예술은 대구·경북이 각각 30.5%와 33.1%로 가장 낮았다. 역으로 말하면 전체 분류번호의 평균 오류는 무려 48.2%, 즉 분류번호를 부여한 2권 중 1권이 오류일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지역(권역)별 분류 오류의 평균 비율도 대전·충청과 부산·울산·경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오

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제분석, 분류규정, 본표와 조기표의 조합방식, 주기 및 우선순위의 이해 등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표 11〉 전체 분류번호의 지역(권역)별 평균 일치율

주류	시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호남·제주	평균
총 류		21.2	33.1	39.6	50.7	27.0	38.2	35.0
철 학		64.6	61.2	55.3	65.2	40.2	33.3	53.3
종 교		57.0	69.0	42.7	65.3	35.2	73.4	57.2
사회과학		68.5	79.6	26.8	41.8	30.7	52.2	50.0
순수과학		46.4	67.1	39.2	30.5	55.3	57.4	49.3
기술과학		34.1	43.1	28.7	53.0	31.1	51.9	40.3
예 술		40.5	71.9	38.8	33.1	66.7	38.1	48.2
언 어		45.4	74.4	59.0	55.8	44.9	27.5	51.2
문 학		79.8	75.1	64.9	83.2	62.8	66.1	72.0
역 사		43.9	83.3	52.1	63.6	49.6	78.6	61.9
평 균		50.2	67.1	46.3	55.7	44.7	51.6	51.8

3. 분류오류의 해소방안과 과제

도서관의 오분류 문제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이는 오분류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그러나 실물자료를 수용하는 한 분류행위는 불가피하다. 또한 어떤 자료에 적용하는 분류표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 결과도 같아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공공도서관을 분석한 결과, 분류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해소방안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분류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인간의 삶은 분류행위를 전제로 한다. 가정의 생활도구, 직장의 서류파일, 백화점의 상품진열에도 일정한 분류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방대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배가·보존하는 위해서는 분류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분류의 아웃소싱이 담론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분류의 필요악 내지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전산화(자동화)·네트워크화·디지털화의 산물이며, 그 신기루에 현혹된 허황한 논리전개에 불과하다. 책이 출판되고 도서관이 수집하는 한, 그리고 정보자료의 성격이 어떠하든 그 내용과 포맷을 표현·기술하고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분류가 필요하다.⁵⁾ 디지털 정보검색과 전자출판물의 체계적 관리에도 분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논문과 인터넷 사

이트가 반증하고 있다.⁶⁾

결국 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자료분류는 사서직의 중요한 기능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명분은 지식세계의 체계적 정렬, 관련자료의 인접배치, 정확한 배가위치의 제공, 서가접근의 편의성 제공⁷⁾ 외에도 주제접근기능의 개선, 검색시간의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분류시스템은 웹사이트의 주제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한다. 게다가 다종다양한 정보자료의 주제분석은 수준높은 정보봉사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자료분류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때 분류오류도 줄어들 수 있다.

2) 학부의 분류교육의 충실화

최근에 학부제의 도입과 더불어 자료분류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부제를 도입한 대다수 대학이 학생유치의 방편으로 전공학점을 하향조정하고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자료분류를 수강하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학생들도 자료분류를 난해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 특정 자료의 주류배정 내역

현 황	특정 자료가 분류된 주류의 수			
	2개	3개	4개	계(%)
시 도				
서울	26	12	2	40
인천·경기·강원	21	2	0	23
대전·충청	31	12	0	43
대구·경북	9	3	0	12
부산·울산·경남	26	9	1	36
광주·전라·제주	25	6	0	31
계(%)	138(23.0)	44(7.3)	3(0.5)	185(30.8)

이러한 제도적 파행에도 불구하고 분류지식이 부실하거나 분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가 사서직으로 취업하고 그들에게 분류업무가 분장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가 아웃소싱이다. 설령 분류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그 결과는 주제분석 및 기호조합의 빈번한 오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6개 지역(권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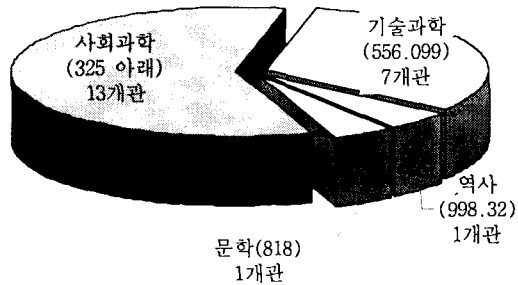
5) Martin Dilon and Erik Jul, "Cataloging Internet Resources : The Convergence of Libraries and Internet Resources,"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2, No.3/4(1996), pp.212-213.

6) Matveyeva, Susan J. "A Role of Classification : The organization of Resources on the Internet." *MLA Forum*, Vol.1, No.2(June 14, 2002) <<http://www.malforum.org/volume1/issue2/roleClassification.html>> ; Traugott Koch, "Provide Browsing Using classification Schemes," <<http://www.lub.lu.se/desire/handbook/class.html>> [cited 2002.12.10]

7) Helena Dittmann & Jane Hardy, *Learn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Lanham : The Scarecrow Press, 2000), p.8.

각각 100종(총 600종)의 자료를 분석한 <표 12>를 보면, 동일한 자료가 2개 주류 이상에 배정된 비율이 무려 30.8%(185종)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사례는 서울의 경우,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라는 자료가 <그림 1>과 같이 4개 주류에 배정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만약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지역단위 또는 전국적 통합검색이 가능하여 동일한 자료가 상술한 것처럼 여러 주류에 분류된 사실을 드러난다면 이용자들은 자료분류 및 사서직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일차적인 해소방안은 학부의 분류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후술할 CIP 데이터의 활용이 부분적인 해법일 수는 있지만, 자료분류의 중요성과 직접적 및 파생적 기대효과를 감안하면 체계적이고도 충실한 기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의 주류배정 현황

3) 사서직 실무교육의 강화

모든 직종은 계속교육을 통하여 지평을 확장(강화)해야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사서직도 예외가 아니며, 기초교육이 부실한 분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제16조 제1항 10호(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 제32조 제6항(사서직 공무원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근거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자료분류의 경우는 선택전문과정에 2개 과목(KDC 자료분류, DDC 자료분류)을 개설하여 실무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권역)을 대상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분석한 <표 13>을 보면 분류능력과 오분류의 심각성을 이해할 알 수 있다. 요컨대 주제파악의 잘못(818~818 ; 902.5~916.6)에서 지역구분표의 미적용(980.208, 980.22)과 자의적 적용(980.2211), 형식구분표의 중복 사용(981.10208), 부적절한 형식기호의 적용(981.1022, 981.1028)에 이르기까지 오분류의 유형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학부교육과 더불어 직무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의 KDC 및 DDC 연수과정은 일반론(기초지식)에 못지 않게 현장의 다양한 오분류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례중심의 분류규정, 조기표(보조표)의 적용기준, 표목 및 주기의 의미와 함께, 본표와 보조표의 조합방식 등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 13〉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분류 현황

분류번호	시·도	시·도			소 계	계(%)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문 학 (800)	816 (한국기행)	2	2	4	8	12 (17.6)
	816.6 (한국 현대기행)	1	1		2	
	818 (한국문학 : 기타)		2		2	
역 사 (900)	902.5 (고고학)	1			1	56 (82.4)
	911 (한국사)	1			1	
	911.0025 (한국고고학)	1	1	1	3	
	916.6(투르크멘 역사)			1	1	
	980.208 (명승답사집/기행집)		2	1	3	
	980.22 (사적,명승,경관)			1	1	
	980.2211 (980.22+11)	1			1	
	981 (아시아지리)			1	1	
	981.1 (한국지리)	2	3	7	12	
	981.102 (한국기행)	9	9	10	28	
	981.10208 (98+11+08)	1	1		2	
	981.1022 (98+11+022)	1			1	
981.1028 (98+11+028)			1	1		
계(도서관수)		20	21	27	68	

4) CIP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

미국에서 시작된 CIP(Cataloging In Publication)는 어떤 자료를 출판하고자 할 때 그 자료의 서지정보를 일정한 포맷으로 편목한 후 표제지 이면에 첨부하여 출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의 경우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시 도서목록'으로 역칭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⁸⁾ 이 제도는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한다. 먼저 출판(서점)계는 CIP 데이터가 출판 및 유통정보로 정착되면 신간의 홍보 및 판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고객)는 자료의 서지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용주나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편리하다. 최대 수혜자인 도서관계는 자료정리에 따른 비용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착과 내실을 기하려면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음에 적시한 현실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출판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계를 상대로 도입취지와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유인책을 강구하는 한편, 그들이 우려하고 반발하는 저의를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해명·설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전검열의 수단으로 인식한 다든지, 표제지 이면에 할애함으로써 복디자이너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데이터 입력에 따른 추가인력 및 시간지연의 문제 등은 출판계가 자주 토로하는 불만이다.

8) <http://211.185.62.19/ecip/default.php>

다음으로 도서관계는 CIP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미 오래 전에 시작한 미국의 경우도 신간자료의 약 70%에만 부여할 정도로 완전하지 못하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회색문헌이 누락되고, 비도서자료와 전자출판물은 원천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계나 사서직은 CIP 도입을 빌미로 정리업무를 경시하거나 가치를 폄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가들이 KDC(4판)와 DDC(21판)의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오분류의 개연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6개 지역(권역)의 분석기준으로 삼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분류번호 가운데 상당수가 분류오류로 나타났다.⁹⁾ 이러한 오류는 극소수의 인력이 모든 주제분야의 자료를 분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외에도 주제분석, 조기표의 이해, 조합방식 등의 부실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CIP 제도는 여러 도서관에 소장된 동일한 자료의 분류번호가 달라지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유력한 대안이다. 그럼에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게다가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하는 분류번호가 오류일 경우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제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그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분류능력을 제고시키되, 단기적으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CIP 분류자문위원회' 내지 '주제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분류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5) 분류표(KDC)의 체계성 및 하위항목의 개선

국내의 공공도서관에서 분류오류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표준도구로 채택하고 있는 KDC의 항목구성, 조합방식, 주기설정 등의 제한성과 모호성에서 기인한다. 1980년에 제3판이 출간된 이후 16년만에 제4판이 등장하였으나, 여러 측면에서 종합분류표로서의 성격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호조합의 측면에서는 본표와 조기표의 단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구분표를 제외한 모든 조기표는 본표의 지시가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KDC는 별도로 지역(또는 한국지역)구분표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가령 「한국의 민법」을 분류할 때는 각국 민법(365.01-.07) 아래에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한다'는 첨가주에 따라 지역구분표가 아닌 역사(9) 아래의 번호(11)를 조합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구분표는 왜 필요한가.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전개항목의 수가 적고, 특히 소장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류의 세목전개는 매우 부족하다. KDC는 DDC와 달리 문학작품(시, 희곡, 소설 등)의 형식이나 특징(대상, 소재 등)을 세분하지 않고 있으며, 서양의 문학작품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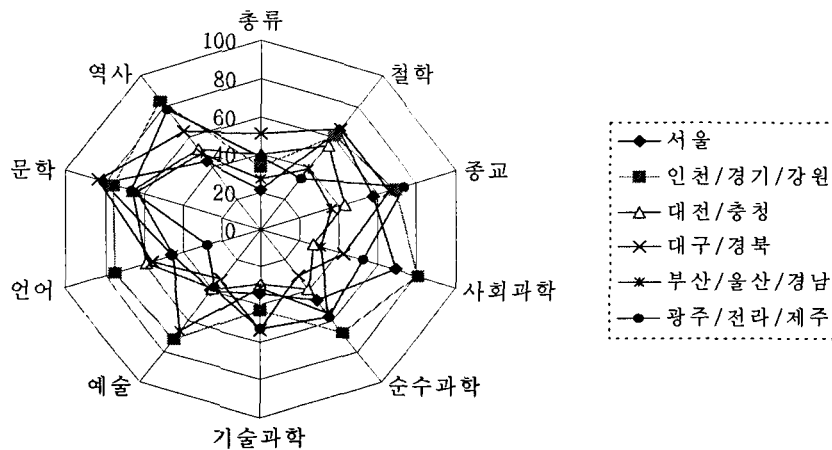
9) 오분류의 예로는 「정보서비스론」 020.13, 「인물한국사」 070.911, 「칸트와 불교」 132.3, 「종교와 문화」 200, 「건축이야기」 540.4, 「물소리 바람소리」 224.3, 「가장 쉬운 일본어 회화」 737, 「한국의 식물」 480.911, 「평생교육백서」 378.05, 「원에도감」 525 등이다.

시대기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결과, 대도시 공공도서관에서는 1만권 내외에 달하는 ‘한국 현대소설’이 동일한 분류번호(813.6)를 갖는가 하면 영미소설은 모두 843에 분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도서관은 한국문학의 시대(6)를 현대 영미소설에 적용하여 843.6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료분류가 균집성과 개별화를 키워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본표의 하위 항목전개에서도 논리성과 체계성이 미약하다. 통상 본표의 세목에 일부 표준구분기호를 항목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다른 세목과 동위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법학이론과 법제사를 각각 360.1(360+01)과 360.9(360+09)에 할애하면서도 360.2와 360.5에는 각각 법령집과 법률제도를 배정하였다. 따라서 핸드북과 잡지는 각각 360.021과 360.05에 분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표준구분기호들의 동위관계가 파괴된다.

이러한 본표와 조기표의 비연계성, 세목전개의 소극성, 항목배정의 비체계성 등은 기호조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분류의 빌미를 제공한다. 따라서 패킷조합에 관한 주기를 전면 재구성하고 하위항목을 대폭 확장하되, 하위주제의 세목전개 뿐만 아니라 본표에서 표준구분기호를 사전에 조합한 경우, 대등관계의 이탈이 불가피하면 그것에 대한 주기를 상세하게 마련하여 분류오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6) 재분류(분류수정)팀의 구성과 가동



〈그림 2〉 10개 주제의 지역(권역)별 오분류 제적

소장자료의 이용방식은 서가 브라우징과 OPAC 검색을 통한 서가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개가계의 산물이며, 자료분류의 기본개념인 균집화와 개별화를 전제로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후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화의 결과이며, 주

제명 통합검색이 가능해야 정보시스템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주제명 검색기능이 불가능하거나 부실하므로 분류번호의 검색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처럼 분류번호는 자료의 검색 및 브라우징 기능을 제고시키는 요소이며, 또한 그렇게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림 2>처럼 문학과 역사를 제외한 대다수 주제분야의 자료에 대한 분류오류는 우려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차원의 통합검색과 개별도서관의 OPAC 검색에서의 누락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류오류를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가칭 '재정리팀' 내지 '태스크포스'를 구성·가동할 필요가 있다.

7) 사이버 분류사이트의 운영

오분류는 학부생 및 실무자에 대한 분류교육을 강화하고 CIP 제도를 정착시켜도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의 실무자는 주제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한 자료를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제분석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 결과로 선택한 분류번호의 편차도 상당히 심할 수 있다. 또한 분류규정, 분류표와 조기표, 주기와 선택조항 등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서의 오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류이론 및 실무경험을 공유하는 공간, 예컨대 공공도서관협의회나 도서관(사서) 연구회가 주도하고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형식의 가칭 '사이버 분류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가상공간은 모든 분류정보를 공유하는 포털사이트의 성격을 유지하되, 실무상 난제의 질의응답(FAQ)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이트의 게시판 정보를 수합하여 분류실무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오분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국내의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한국십진분류법을 표준도구로 사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자료에는 동일한 분류번호가 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소위 분류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분류의 유형은 주류배정의 오류, 강목 및 요목배정의 오류, 그리고 세목전개의 오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주제분석의 잘못으로 인한 주류배정의 분산이 가장 심각한 오류라 할 수 있다.

2. 분류오류의 원인은 주제결정(파악)의 잘못, 형식·시대·지역에 대한 판단(적용)의 잘못, 분류규정의 몰이해 또는 적용상의 오류, 주기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및 적용상 잘못, 조기표 적용의 오류, 그리고 분류표의 비논리성과 항목전개의 제한으로 집약할 수 있다.

3. 지역(권역)별 분류오류의 경우, 서울의 완전한 분류번호의 오류비율은 49.8%에 달하며, 특히 총류와 기술과학에서 오류가 많았다. 인천·경기·강원은 32.9%이고 철학에서의 오류사례가 많았으며, 대전·충청지역은 53.7%인 가운데 사회과학의 오류비율이 높았다. 대구·경북은 44.3%이고 예술자료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무려 55.3%에 달하며, 특히 종교와 총류에서 오류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라·제주는 48.4%이며, 예술과 철학의 오류비율이 높았다.

4. 분류수준별 오분류의 경우, 주류번호의 평균 비율은 약 12.1%이며,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기술과학·예술·역사가 각각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강목번호에서는 평균 19.7%이며, 역시 총류·철학·종교·기술과학이 각각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요목번호는 평균 31.7%에 달하며, 문학과 역사를 제외하면 각각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분류번호의 평균 오류는 무려 48.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였다.

5. 분류오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분류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학부의 분류교육의 충실화, 사서직 실무교육의 강화, CIP 제도의 정착과 내실화, 분류표(KDC)의 체계성 및 하위항목의 개선, 재분류(분류수정)팀의 구성과 가동, 그리고 사이버 분류사이트의 운영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행위는 불가피하다. 그것은 지식정보의 체계적 배가, 유사 또는 관련자료의 인접배치, 서가접근 및 브라우징의 편의성 제공, 검색시 간의 절약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종다양한 정보자료에 대한 분류행위는 주제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장자료의 이해와 수준 높은 정보봉사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자료 분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그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배영활, 오동근. “한국십진분류법의 우선순위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2002, 6), pp.167-187.
- 윤희윤. “DDC文學類의 組合式 分類시스템 分析.” 圖書館學論集, 第20輯(1993, 12), pp.351-381.
- 윤희윤. 정보자료분류론 : 이론과 실제. 대구 : 태일출판사, 1998.

- 정연경. “DDC 21과 KDC 4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0, 3), pp.181-205.
- 정해성. “DDC의 패킷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pp.53-96.
-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十進分類法. 第4版. 서울 : 同協會, 1996.
- Chan, Lois Mai and Joan S. Mitchell, eds.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Edition 21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Albany : OCLC Press, 1997
-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Vol.1(Introduction and Tables)*, 21th ed. New York : Forest Press, 1996.
- Dilon, Martin and Erik Jul. “Cataloging Internet Resources : The Convergence of Libraries and Internet Resources.”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2, No.3/4(1996), pp.197-238.
- Dittmann, Helena & Jane Hardy. *Learn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Lanham : The Scarecrow Press, 2000.
- Marcella, Rita and Arthur Maltby, eds. *The Future of Classification*. Aldershot : Gower, 2000.
- Matveyeva, Susan J. “A Role of Classification : The Organization of Resources on the Internet.” *MLA Forum*, Vol.1, No.2(June 14, 2002)
<<http://www.malforum.org/volume1/issue2/roleClassification.html>>[cited 2002.12.13]
- Miksa, Francis L. *The DDC, the Universe of Knowledge, and the Post-Modern Library*. Albany : OCLC Press, 1998.
- Olson, Hope A. “Mapping Beyond Dewey’s Boundaries : Constructing Classificatory Space for Marginalized Knowledge Domains.” *Library Trends*, Vol.47, No.2(Fall 1998), pp.233-254.
- Oyler, Patricia G. “Teaching Classific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67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Aug. 16-25, Boston, 2001)
<<http://211.185.62.19/ecip/default.php>> [cited 2002.12.20]